

김현미 장관 “빈틈없는 국정 운영과 안전 관리에 만전”

-8일 세종서 전 직원 월례조회 개최...주택시장 안정·안전관리 철저 강조

-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지원에 총력 당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(월) 국토교통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를 통해 빈틈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서민주거 안정, 교통난 해소,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.

- 또한, 강원도 산불 지역 주민들께 “가장 근사치의 일상을 돌려 드린다는 마음을 갖고 국토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고민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‘문제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’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”면서,

- “좋은 정책은 일관되고 올곧게 계승해 나가고,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들은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- 특히,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거듭 강조하며,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임차인 보호 강화와 같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.
- 이와 함께 “안전 부주의, 초동 대처 미흡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관행은 ‘무능’”이라면서, 잦은 결함과 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깊은 안전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.

- “미세먼지 역시 국민의 안전, 생명의 영역”이라고 정의하며, 버스나 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을 수소에너지로 전면 전환하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것”을 주문했다.
- 아울러, 김 장관은 “국토교통부가 건설분야를 필두로 대한민국의 어제를 먹여 살렸다면, 이제 미래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”라면서,
 - ‘공감, 일관된 정책의지, 능력’ 등을 공직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꼽으며,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지역 사업과 7대 혁신기술 확산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”고 말했다.
 - 이를 위해 “도시재생뉴딜사업,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, 새만금, 혁신도시 시군2와 같이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업들을 파급력 있는 브랜드로 키워내자”고 강조했다.
- 또한, “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도시 단위의 제로에너지건축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”을 주문했다.
- 김 장관은 “이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는 우리가 ‘하나의 팀’이 된다면 이러한 목표들은 실현가능하리라 믿는다”면서, “우리 부 직원 한분 한분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”며 각오를 다졌다.

2019. 4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